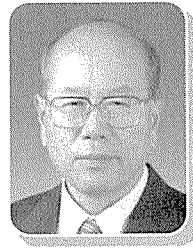


세 얼굴의 문헌정보인

- 김두홍 교수에 얽힌 이야기 -



글·최성진 /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김두홍을 소개하면서 이 분은 우리나라에서 전국범위의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개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를 단지 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개척자라고 소개하는 데 그친다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렇게만 말한다면 그의 주요 경력 중 일부를 소개하였을 뿐 비슷하게 중요한 다른 경력 부분을 빠뜨리기 때문이다. 그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일어난 우리나라 초기 학교도서관운동을 선도한 사서교사였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대학의 문헌정보학 교육에 산·학 협력이라는 새로운 요소의 도입을 주장하고 수범한 문헌정보학 교수이기도 하다. 이론적으로는 다 같은 문헌정보 분야지만 실제로는 사람, 환경, 방법이 다른 학교도서관, 국가 차원 정보관리, 문헌정보학 교육의 세 전문분야에서 활동하였고 그들 분야에서 그는 큰 업적을 남겼다. 세상에는 평생 한 우물을 파는 사람도 있지만 세 개 또는 그 이상의 분야로 일 자리를 옮겨가며 경력을 쌓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그가 거친 여러 분야에서 고루 뛰어난 업적을 남기는 경우는 흔치 않다. 김두홍은 세 분야에서 다 앞장서 당대를 이끈 지도자였다. “조국 근대화”라는 기치 아래 온 나라가 열병에 걸려 뜨거웠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그는 문헌정보 분야에서 그 나름의 소명감을 느끼며 수도승처럼 헌신적으로 정말 열심히 일하였다. 지금은 고인이 된 그가 그 시절 열심히 일하던 모습이 필자의 뇌리에는 아직도 선하다.

그가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이하 “Korstic”이라 한다)의 소장으로 재임 시 필자는 정보학을 전공하는 교수로서 자연스럽게 이 기관이 주최하는 과학기술정보 관련 세미나 또는 그 밖의 행사에 참석하며 자주 그를 만났다. 당시 Korstic은 국내 최대의 학술잡지 구독기관이었고 필자가 봉직하는 대학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므로 개인적으로 최근에 발표된 논문들을 조사할 목적으로 출입하는 일도 있었다. 그 때마다 필자는 그의 사무실에 들러 지금 생각하면 무슨 희극 속의 대



(故 김두홍 교수)

사 같은 이야기지만 그 때는 사뭇 진지하게 그런 이야기를 장시간 나눈 기억이 난다. “조국 근대화”의 성공이 우리 세대가 하기에 달렸다고도 하고 수출산업의 발전은 주로 우리가 맡은 과학기술정보 공급의 효율에 달렸다고도 하며 끝도 뜻도 없는 토론을 벌이곤 하였다. 그는 대단한 능변가(能辯家)였으며 즐거운 대화 상대였다. 조용하지만 힘있게 자신의 견해를 말하고 어떤 상대도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와 필자 사이에는 남모르는 기연이 하나 있었다. 1973년 초 그가 Korstic 소장으로 임명되었다는 결정을 통보 받은 지 며칠 안 되었을 때 운명의 장난인지 애타게 기다리던 중요한 편지가 또 한 장 그에게 날아들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문헌정보학 조교수로 채용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것이다. 학문하는 가문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오래 전부터 교수가 되려는 꿈을 키워온 그에게 그것은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을까. 그러나 많

은 생각 끝에 그는 Korstic 소장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였다. 그가 포기한 성대 문헌정보학 교수 자리에는 후일 필자가 들어갔다. 그렇게 의도하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양보한 자리에 필자가 들어가게 되고 비록 이렇다 할 업적을 남기지는 못하였지만 필자는 25년 동안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연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던 것이다. 그를 포함하여 다른 아무도 모를 그 운명적 주고받음을 기억하며 필자는 지금도 고인이 된 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 ● ○ 학교도서관 운동의 선두에 서서

김두홍이 문헌정보 분야에 들어오게 된 것은 우연이 빚은 결과였다. 6.25동란중 한 때 그는 부산에 있는 육군병참학교에서 교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어느 날 교장실에 불려간 그는 교관들이 이용할 도서실을 만들어보라는 명령을 받았다. 도서관에 다닌 적이 있어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절차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도서관에서 책을 어떻게 수집하고 정리하고 보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 같은 것은 전혀 없던 때의 일이다. 그렇지만 그는 부산시립도서관 사서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주야로 뛰고 노력한 결과 짧은 기간에 제법 훌륭한 도서실을 병참학교 내 한 구석에 마련할 수 있었다. 교장은 만족하였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놀랍다는 칭찬을 들었다. 그는 특유의 근면성(勤勉性)을 발휘하여 도서실 봉사를 개선하고 확충하는 일에 계속 힘쓰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지고 발전하는 도서실의 모습에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후 예편하여 그 곳을 떠남으로 그의 첫 번째 도서관 체험은 일단 거기서 끝이 났다. 이 이야기는 그의 생애에서 여름날 한 줄기 소나기처럼 그냥 지나가 버린 것처럼 보였

지만 이 일로 그의 한 발이 문헌정보 분야에 깊숙히 빠져 들어갔던 것이다. 다만 그 사실을 그를 포함해 아무도 깨닫지 못하였을 뿐이다. 누가 그것을 인식하였든 못하였든 그의 문헌정보 인생의 씨는 그 때 거기서 뿌려진 것이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필자는 문헌정보 분야의 다른 인사들로부터도 들은 바 있다. 미국에서 문헌정보학을 공부하던 시절 필자의 은사였으며 후에 문헌정보학 분야 저서를 주로 출판하는 "Becker and Hayes, Inc"사의 사장이 된 조제프 베커는 2차 세계대전 중 미국 해군에 입대하였는데 기록사병의 착오로 뜻밖에 사서 특기자로 분류되어 제대할 때까지 군함 도서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군함 도서관에서 그는 처음 불만 속에 살았으나 차차 책과 더불어 일하는 것이 즐겁고 그것이 자기 적성에도 맞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제대후 그는 대학 문헌정보학과로 직행하여 공부하고 결국 문헌정보학 교수가 되었다. 역시 필자의 은사인 영국 러프버러대학의 피터 하버드윌럼즈 교수는 교육학 전공 학생으로 옥스퍼드대학 재학시 그 대학의 한 도서관에서 시간제 근로학생으로 일하면서 도서관내의 밝고 평화스러운 분위기에 매료되었고 장차 자신도 사서가 되어 도서관에서 일하리라 결심하였다. 대학 졸업 후 그는 당시의 그 나라 제도에 따라 영국도서관협회 주관 사서국가고시를 준비하게 되고 협회 정회원(FLA) 자격시험을 거쳐 마침내 문헌정보학 교수가 되었다. 다른 분야의 상황은 필자가 과문한 탓으로 잘 모르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문헌정보 분야에서는 이렇듯 다소 비정상적이라 할 수 있는 경로로 입문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 문헌정보 분야에 들어가는 정상적인 경로라면 먼저 대학이나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문헌정보학을 배운 후 사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김두홍과 위의 두 사람은 우연한 기회에 먼저 도서관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고 그 일

이 좋아져서 후에 문헌정보학을 공부하여 다시 시작한 것이다.

1956년 1월에 군에서 제대한 김두홍은 두 달 후 부산에 있는 경남고등학교 지리교사로 채용되었다. 당시의 어려운 취업사정을 감안하면 그것은 상당히 빠른 걸음이고, 행운이었다. 당시 경남고등학교의 추월영 교장은 그의 친구 부친으로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그런 사적인 관계로 미루어 기회 있을 때마다 그는 추교장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 이야기 속에는 아마 육군병참학교 시절의 도서관실 성공담이 되풀이되고 자연스럽게 학교도서관의 도입 필요성이 그 성공담과 연계되었을 것이다. 세계에 학생들이 배워야 할 지식은 많은데 그것을 몇 권의 얇은 교과서와 몇 사람의 교사가 가진 지식에 의존해야 하고 그마저 주로 한정된 수업시간을 통하여 지식을 전수해야 하는 전통적 교육행위는 너무 불완전하여 시급히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때 선진국들에서는 그 두 개의 전통적 지식 전수 경로를 보충하기 위하여 이미 학교도서관이라는 제3의 경로를 설치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책 속에 기록된 거의 무제한한 지식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자유롭게 접근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또 당시는 6.25동란 후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우리 나라의 교육을 개선해보자고 하며 교육현장의 모든 구성원들이 "새 교육"이라는 표어를 흔들면서 교육개혁 운동 대열에 나서고 있던 때였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새 교육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던 추교장은 김두홍의 메시지에 신속히 응답하였다. 김두홍에게 사서교사 겸직 발령을 하고 경남고등학교 도서관의 운영을 맡겼다. 추교장은 김두홍을 사서교사로 발령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날부터 그와 학교도서관의 열렬한 후원자가 되었다. 경남고등학교 도서관을 전

국의 모범적 학교도서관으로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추 교장의 적극적 지원은 사서교사 김두홍에게 다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큰 힘이 되었다. 김두홍에 대한 추 교장의 절대적 신임은 이 때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되어 그가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도서관 담당 장학사가 되어 이동할 때에도 추 교장의 추천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한다. 김두홍은 1998년에 가진 한 대담에서 그가 이룬 학교도서관 발전의 공을 겸손하게 추 교장에게 돌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경남 지방에서 학교도서관 운동이 일어나 성공한 것은)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된 교장들이 경남 지방에 있었다는 것을 중요한 요인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 교장들이 당시 진주여고의 박경원 교장, 경남 고등학교의 추월영 교장이지요. 그 분들이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이 시작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사람들의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김종성, 학교도서관이 살아야 교육이 산다, 도서관문화, 1998: 39: 4, p. 10)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에 대하여 의식화된 교장의 존재가 학교도서관 발전에 있어서 그의 말대로 중요한 요인이고 영향력이 컸던 것은 사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교장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지원자나 배후 영향력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도서관 운영의 실재를 배우기 위하여 시립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연일 찾아다니고 도서분류법과 편목규칙을 밤새워 읽어 익히며 전체적으로 우호적이라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오로지 신념을 가지고 힘들게 학교도서관을 만들어 간 주체는 교장을 포함하여 다른 누구도 아닌 사서교사들이고 그 공도 그들의 몫이었다. 추 교장이 경남 지방 학교도서관 운동사의 중심에서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그를 그렇게 만든 것도 사서교사 김두홍이었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당시 고등학교 특히 명문고등학교 교장들의 관심은 일반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대학 입시과목을 어떻게 잘 가르쳐 더 많은 수의 졸업생을 일류 대학에 합격시키느냐에 집중되어 있었고 또 사실 김두홍을 만나기 전까지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추 교장의 실적은 적어도 기록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경남고등학교 지리교사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 사서교사로 겸직 발령을 받고 당시 이름뿐인 초라한 도서실을 떠맡은 김두홍이 첫 번째로 수행할 과제는 학교에서 배정된 교실 두 개 넓이의 공간에 책과 비품을 사 넣고 일 년 후에 현대적 수준의 도서관을 여는 것이었다. 그는 이 일이 그의 생애에 있어서 처음으로 자신의 사회적 활동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 과제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쳐야 한다고 그는 다짐하였다. 첫째, 그 동안 자신이 학교도서관에 관하여 한 말들이 헛소리가 아님을 입증하고 둘째,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적 신임을 표시한 추 교장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하고 셋째, 지금은 무명의 지리교사 자리에 앉아 있으나 자신은 학교교육의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재목으로 당연히 학교의 엘리트 교사그룹에 소속됨을 동료 교사들에게 인식시키고 넷째, 학교도서관을 통한 새 교육의 실현이 자신의 선도적 역할 하에 실제로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새로 마련할 경남고등학교 도서관의 본이 될만한 학교도서관이 같은 지역내에 있는지 찾아보았다. 당시 학교도서관이라고 부를만한 도서관으로 진주여고 도서관과 마산여고 도서관이 있었으나 이 두 도서관의 내용과 운영방식은 다 그저 그렇고 그런 수준이었다. 몇 개의 도서관을 더 둘러보고 나서 그가 얻은 결론은 이번에 만드는 새 도서관은 어느 기존 도서관과 비슷한 도서관이 아니라 그들과는 차별되는 선진국형의 현대적 도서관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려운 시기에 많은 돈을 들여 기존 도서관보다 실질적

으로 나올 것이 없는 또 하나의 구식 도서관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는 이상과 현실을 번갈아 생각하면서 고심한 끝에 부산 소재 미국문화원 도서관을 신설 경남고등학교 도서관의 본으로 삼기로 하였다. 학교도서관과는 설치 목적이나 기능이 다른 미국문화원 도서관을 복사하는 식으로 모방하여 경남고등학교의 새 도서관을 세울 수는 없다. 그렇지만 맞지 않는 부분은 학교 고유의 환경과 생리에 맞게 조절하면 되지 않겠는가. 다만 끝까지 결정을 미루며 고민한 문제는 미국문화원 도서관 자료의 개가식 배열방법을 경남고등학교 도서관에서도 채택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 방법의 채택에는 다소의 불확실성이 따랐기 때문이다. 자료의 개가식 배열방법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서가에 접근하여 스스로 원하는 자료를 뽑아 보는 방식이므로 당연히 자료의 도난과 분실의 염려가 있었다. 또 그 때까지 국내 도서관의 거의 모두가 폐가식 배열방법을 채택하고 있었고 일부 도서관에서만 반개가식 배열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요컨대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에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방식이었다. 자료의 개가식 배열에 대한 반대의견이 학교 내에 있었으나 김두홍은 개의치 않고 개가식 실험을 하겠다고 하였다. 이용자 편에서 보면 이 방식이 다른 방식들에 비하여 훨씬 편리하며 또 다른 나라 학교도서관에서는 보편화된 방식인데 우리 나라라고 안 될 리 없을 것이며 더욱이 경남고등학교 학생들의 명예의식과 도덕수준을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 불안감은 다소 남지만 추 교장은 결국 김두홍의 집요한 설득에 따라 그의 견해에 동의하여 이 문제는 일단락 지어졌다.

선진국형의 현대적 학교도서관, 좀 정직하게 말한다면 부산 소재 미국문화원 도서관을 본 딴 경남고등학교의 새 도서관 청사진은 완성된 셈이다. 이제부터 할 일은 필요한 만큼의 경비를 확보하고 김두홍이 그 동안 남몰래 감춰온 놀라

운 재능과 추진력을 총동원하여 그 청사진을 일년 후에 실제의 존재로 옮기는 작업이었다. 모든 자원이 부족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 단계의 일은 김두홍이 몇 해 전에 육군병참학교에서 한번 경험한 바 있어 아주 생소한 일은 아니었다. 그때는 뭐 필요한 자원이 넉넉했던가. 그가 발로 뛰고 지혜를 짜서 부족한 자원을 보충하면서 실현시킨 도서관이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가냘픈 몸을 혹사하면서 그는 일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동분서주하였고 계획에 따라 일을 하나 하나 착실하게 진행하였다. 마침내 1957년 5월에 경남고등학교 새 도서관은 개관되었다. 국내 최초로 자료의 개가식 배열방법을 채택한 도서관이 출현한 것이다.

경남고등학교의 새 도서관 개관은 하나의 사건이었다. 이 도서관은 그 때까지의 상식 수준을 뛰어넘는 새로운 모습의 도서관이었다. 동료 교사들은 새로 들어온 왜소한 체구의 지리교사가 일년 동안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으나 그가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줄은 몰랐다. 학생들은 함성을 지르며 좋아하였고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인사들도 소문을 확인하려고 새 도서관을 방문하고 감탄하며 돌아갔다. 인근 고등학교 교장들도 견학하러 왔다. 김두홍은 경남고등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경남지방에서도 갑자기 유명인사가 되었다. 유명인사가 된 후 그의 일과는 바빠졌다. 방문자들의 상담 요청에 응하고 교사들의 모임에서 학교도서관 주제의 강연도 자주 하였다.

김두홍을 선구적 학교도서관 운영자로 확실하게 공인한 사건이 다음 해 즉 1958년 9월에 일어났다. USOM(United States Operations Mission) 교육국 주최로 경남고등학교 도서관에서 “개가제 학교도서관” 주제의 연구발표회가 열린 것이다. 당시 개가제 학교도서관은 김두홍의 발명품과 같은 것이었다. 김두홍의 도서관 이야기를 듣

고 그가 만든 현대적 학교도서관을 둘러보려고 전국에서 교장과 교사들이 이 발표회에 모여왔다. 각 학교가 학교도서관을 설치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낙후한 우리 나라의 교육을 개혁해야 한다고 김두홍은 세미나 참석자들 앞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였다. 이 세미나의 파급효과가 그 후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다음의 글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선구적인 학교도서관 운영의 영향으로 경남 지역에서는 경남공고, 경남상고, 부산상고, 부산여고, 하동중, 김해여고 등에서 개가제 도서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며, 1960년대 초에 경남의 중고교에는 그 규모의 대소와 운영의 우열을 막론하고 대부분 도서실을 보유하게 된다(조재후, 지방도서관의 현황: 4. 경상남도 지방, 도협월보, 1962(7-8): 3: 4. 36쪽).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처음에는 경남 지방에, 후에는 전국적으로 학교도서관 설치의 바람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난 것은 기적과 같은 것이었다. 6.25동란 후의 궁핍과 혼란, 특히 현상 유지에도 부족하였던 교육재정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 바람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며 일단의 선각적 사서교사들이 힘들여 의도적으로 일으킨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선두에 김두홍이 있었다.

김두홍의 바쁜 나날은 계속되었다. 전국적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던 경남고등학교 도서관의 장서와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키고, 각종 교사 모임에서 행할 강연을 준비하는 일 등으로 숨들릴 사이도 없었다. 한창 일할 나이기는 하였지만 몸은 피로하였다. 그러나 마음은 늘 의욕으로 차 있었다. 김두홍은 한국 학교도서관 운동에서 누구도 대체하기 어려운 지도자의 위치를 굳히고 있었다. 그런데 이 때쯤 그는 내심 학교도서관 운동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어나는 학교도서관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근거가 될 전문적 지식과 이론이 그에게는 충분히 없었던

것이다. 지난 날 내가 확신을 가지고 행한 모든 일들이 과연 최선이었을까. 더 나은 대안은 없었을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가. 오랫동안 교과서와 교사의 주입식 수업으로 굳어버린 학교교육, 교사와 학생이 다 상급학교 진학을 주목표로 가르치고 공부하는 자세, 그래서 입학시험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의 습득은 소홀히 되는 현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구식 학교도서관 운영이 우리 나라 학교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새 교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그의 마음에 회의가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결국 그런 물음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그는 좀 늦었지만 전문교육기관을 찾아 정식으로 도서관학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다행히 그 때 연세대학교 부설 도서관학당이 계절학기제로 운영하는 사서교사과정(이후 사서교사과정)이 있어 교사들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이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도서관학당 입학에 결심하고 나서 김두홍은 그 때까지 학교도서관 운동을 함께 하여온 동지들에게 그의 뜻을 알렸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김두홍을 따라 도서관학당에 가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조재후, 김세익, 김경일은 김두홍과 함께 1959년 여름에 도서관학당에 들어가고 박태신, 이규범, 최근만은 이듬해 여름에 들어갔다. 사서교사 김두홍은 오래간만에 학생신분으로 돌아와 교수와 흑판을 마주보고 앉았다. 그는 도서관학당에 입학함으로써 그의 중요한 메시지를 세상에 보냈다. 그는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였고 학교에 취직해서는 지리과목을 가르쳤다. 군에서 근무하던 중 우연히 도서관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것이 연이 되어 경남고등학교에서 사서교사를 겸직하게 되었는데 그 일에 열중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학교도서관 운동의 리더가 되어 있었다. 우연으로 시작된 길이지만 그 동안 젊음을 태우면서 열심히 일하였고, 일하면서 신나고 보람있었던 도서관 분야에

앞으로도 계속 머무를 것인지, 학부 때의 전공분야를 더 공부하여 사학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중등학교 교사로서의 길을 충실히 갈 것인지. 어느 하나를 취하고 나머지는 버려야 할 때가 되었는데 그 결단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결단을 꼭 내려야 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평생 경력 분야로 도서관을 선택하였고 그것이 도서관학당 입학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의 메시지였다. 그가 육군병참학교 시절 도서관에 한 발을 빠트렸음은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그렇게 한 발이 빠진 지 수년 후에 밖에 남아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던 다른 한 발까지 완전히 도서관에 빠져 들어간 것이다. 이제 그는 문헌정보 분야 경주로의 출발선에 정식 선수로 서게된 것이다.

●● ●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소장으로서

1971년 2월에 김두홍은 Korstic 초대 소장으로 취임하였다. 경남고등학교에서 학교도서관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경남지역 학교도서관 운동을 역동적으로 이끈 그의 리더십이 인정되었음인지 경남고등학교에 부임한지 6년만에 그는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도서관 담당 장학사로 발탁되어 갔다. 장학사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는 다시 부산·경남지역에서 안정된 중등교육 분야 경력을 계속 추구할 것인지, 서울에 가서 한번 큰 기회를 찾아 볼 것인지 등 이후 진로의 선택 문제로 고민하였다. 결국 그는 모험을하기로 하였다. 1966년에 그는 장학사직을 사임하고 서울에 있는 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 자리를 얻어 부임하였다. 그의 서울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그 때로부터 5년 후 그는 Korstic 초대 소장으로 취임하였다. 그의 나이 마흔 세 살 때의 일이다. 그가 초대 소장이었으므로 Korstic이란 기관이 그 때 설립되었을 것이라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또 그가 소장으로 취임하던 때의 Korstic 규모가 일반 시민이 그 존재를 인지하기 시작한 1970년대 후반에 본 그것처럼 처음부터 큰 청사를 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일하는 당당한 기관이었을 것이라 짐작하기 쉬우나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에 그가 만든 것이다. Korstic은 1962년 1월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한 부로 설치되었다. 조용하고 조그만 시작이었다. 일의 성격상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한 부로 Korstic을 계속 묶어두는 것이 불합리하다 하여 2년 후에 그것은 사단법인체로 독립하여 교육부 산하기관이 되었다. 1967년 3월에 과학기술처가 설치되면서 Korstic은 교육부에서 과학기술처로 이관되고 법인체도 바뀌어 재단법인이 되었다. Korstic의 운영은 법적으로 비상근직인 이사장이 맡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상근직인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있었다. 1971년 2월에 이사회의 결의로 사무총장제가 소장제로 바뀌고 초대 소장으로 당시 자료관리국장이었던 김두홍이 선임된 것이다. 창설 이래 그 때까지 Korstic은 조직이나 환경 면에서 위와 같이 여러 번 변화를 겪으며 불안정한 모습으로 명을 이어왔다.

소장이 되기 2년 여 전에 Korstic에 들어와서 사무국장직과 자료관리국장직을 차례로 맡아 일하며 내부 상황을 이미 잘 파악하고 있던 김두홍은 소장에 취임하면서 우선 이 Korstic이라는 국내 유일의 전국적 종합 과학기술정보 지원 기관이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이름에 부합한 일에 충실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되려면 몇 가지 기본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였다. 다른 무엇보다도 Korstic은 전국에서 활동하는 과학자와 기술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하라고 설립된 것이다. 그러면 그 과학자와 기술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는 누구인가. 그들이 연구활동과 산업활동과정에서 실제로 찾는 요긴한

정보는 무엇인가. 그러한 정보자료를 Korstic은 수집하고 있는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들이 소장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요컨대 Korstic은 현재 그들에게 실제로 유용한 서비스 기관인가. 그들에게 유용할 것이라 생각하여 설립하고 그런 희망으로 운영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서비스기관은 아닌가. 이용자가 외면하는 서비스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경남지역에서 학교도서관 운동을 하며 소수의 교사와 학생들만이 찾아오는 도서관을 지키면서 좌절을 경험한 일이 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 교육을 이룬다는 부푼 기대로 많은 돈과 정성을 들여 여러 학교에서 도서관을 설립하였지만 수업과정과 학습과정에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여 문을 열었으나 사실상 휴관 상태로 하루를 보내는 날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사서들의 의욕이 꺾이고 결국 한 때 전국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났던 학교도서관 운동이 수년 후에는 침체 상태에 빠져 들지 않았던가.

어떤 정보서비스든 그것이 표면화된 특정 정보의 수요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면 성공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도서관 역사상에 나타난 한 사건이 머리에 떠오른다. 20세기 초 미국 뉴어크(Newark) 지역은 급속히 산업화되고 있었다. 날마다 새로운 공장 근로자가 유입되고 있던 이 곳의 한 공공도서관 사서 존 씨 대너는 기술직과 기능직 종사자들에게 그들의 일에 도움이 될 정보를 주로 제공하는 특수 공공도서관이 필요함을 깨닫고 미국도서관협회 연례총회 석상에서 그러한 전문도서관(Special Libraries)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도서관의 전통적 위상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는 발상이라며 그의 제안은 협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너와 그의 소수 지지자들은 엄연한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협회



▲ 박정희 대통령의 KORSTIC 준공식 후 내부 순시 모습. 196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오른쪽이 조경철 사무총장이며, 조 사무총장 오른쪽 뒷편으로 김두홍 당시 자료관리국장의 모습이 보인다.

의 태도에 실망하고 그 해 9월 브레턴우즈에 모여 전문도서관협회(Special Libraries Association)를 창설하였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식을 이용하게 하자”는 표어 아래 주로 기술직과 기능직 종사자들의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특수도서관은 그 후 전국에서 우후죽순처럼 출현하여 얼마 안 있어 전문도서관협회 회원도서관 수가 미국도서관협회의 회원 도서관 수를 능가하였다. 당시 미국 전문도서관들의 성공은 목마르게 찾는 구체적 정보수요에 기초하여 탄생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특정 정보수요에 응답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발전하지 못하고 막연히 전국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서비스로 발전시키려고 하였던 Korstic은 1962년에 그것이 설립된 후 10년 동안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도 유용하지도 않았으며 소수 이용자들만이 출입하며 혜택을 누리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심지어 문헌정보학 교수들 가운데서도 그 존재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결국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뜻이 아닌

가. 밤이 깊었으므로 이제 Korstic의 새벽을 깨울 새로운 리더십이 출현할 때가 무르익고 있었다. 전국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활동하는 세계 속을 손금 보듯 환히 분별하여 볼 수 있는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비전과 의욕을 가진 지도자들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기대 속에 김두홍이 초대 소장으로 취임한 것이다.

김두홍은 충기가 번득이는 눈을 제외하면 신체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는 평범하고 당시의 기준으로 좀 왜소하다고 할 수 있는 체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가 낳은 몸 속에 뛰어난 리더십을 감추고 있었다. 그가 71년간의 생애를 마치고 우리의 곁을 떠난 지 4년이 되는 오늘에 와서 그의 생애를 뒤돌아 보면 그는 여러 면에서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창설과정과 창설 후 초기 발전단계에서 발휘하는 리더십이 돋보이는 그런 지도자였다. 필자는 리더십에 대하여 깊은 지식이 없어 이런 말을 하기가 조심스럽지만 경험상으로 지도자 중에는 초창기, 혼란기 등 비상시에 일을 잘 처리하는 지도자가 있고 안정된 평상시에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적합한 지도자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김두홍은 물론 전자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는 그의 경력중 학교도서관 운동과 Korstic 발전의 초기단계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였고 그것이 정상 궤도에 오른 후기에는 상대적으로 그의 리더십에서 생기가 떨어진 감이 있다. 평상시의 지도자는 거의 판에 박힌 일상 업무를 관례와 법규에 따라 처리하며 그 업무의 결과가 목표 성취에 이바지 하는지 유의하면 되는데 그런 관리 행위는 그의 기질에 맞지 않고 따분한 것이었다. 그에게는 오히려 날마다 상황이 새롭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돌출하지만 거기에 적용할만한 마땅한 관례나 법규가 없어서 조직의 구성원들이 어찌 할 바를 모르며 그래서 더욱 지

도자의 탁월한 식견과 창조적 사고가 중요한 그런 상황에서 일하는 것이 신명나고 보람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일하는데 유용한 개인적 자원이 그에게는 아주 풍부하였다.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다. 그것은 Korstic의 미래를 위하여 매우 다행한 일이었다. 1972년에 간행된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10년사』의 '간행사'에서 그는 취임 초기에 그가 가졌던 비전의 일단을 이렇게 적고 있다. "정책입안자로나 설립에 참여한 이들의 당초의 목표대로 본 정보센터가 우리의 과학과 기술의 개발에 필수적 존재로 성장하려면 더 많은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야 한다. 창설 10주년에 즈음하여 금후 10년에는 보다 알찬 역사가 기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스스로 다짐한다." 그는 Korstic 소장으로 재임한 12년 동안 열심히 일하여 그 때 자신에게 다짐하였던 바를 훌륭하게 이루었다. 한국의 과학기술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과학기술자들에게도 유용한 국가 정보서비스 기관으로 성장한 Korstic을 그는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떠나갔다. 그는 단지 기다리기만 하면 꿈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순진한 사람이 아니었다. 꿈은 계획에 따른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다. 즉각 꿈을 이를 계획 수립에 착수한 것이다.

최성용, 이창교, 사공철, 정명조, 유경희, 김규해 등 Korstic 내의 엘리트 직원들이 선발되어 개발팀이 구성되었다. 그들은 국내외 관련 문헌을 모아 주야로 읽었고 자주 만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였다. 김두홍 소장과 팀 구성원들이 합의한 구상은 외국의 경험과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여 Korstic을 중심으로 하고 국내외의 다른 주요 도서관과 정보서비스 관련 기관들을 외부 지원기관으로 편입시켜 하나로 묶는 전국적인 통합 정보자원과 그 유통망을 구축하는 일이었다. 즉 Korstic

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다. 마침내 그 모형이 완성되어 1973년에 Korstic은 “국가과학기술정보유통시스템의 구상”이라는 제목의 야심적 제안서를 정부의 관계 부처에 제출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중추적 종합정보센터인 Korstic의 자원과 서비스의 폭을 전국적 수요에 맞게 대폭 늘리고 특히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 도시에 지소를 설치하여 지방에서 활동하는 과학기술자들도 쉽게 통합 정보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명실 공히 전국적 정보서비스 시스템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국내 과학기술자들이 외국에서 생산된 정보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CASIS, MEDLARS, INIS, INSPEC 등 각 분야의 세계적 정보파일을 입수하여 대단위 데이터뱅크를 구축하고 영국 국립도서관 대출부 등 주요 외국 정보서비스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확대 강화하는 과제도 제안서에 포함하였다. 확대된 통합정보자원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을 도우려면 이차 정보 자료를 다양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새로운 신착자료 속보, 색인지, 초록지 등이 작성 배포되어야 하고 영국 국립도서관에서 하는 일과 유사한 외국 학술잡지 기사 번역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했다. Korstic은 이 시스템의 구축을 3년만에 걸쳐서 완성하도록 연차계획서를 붙여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제안서를 제출한 후 김두홍은 과학기술처 장관의 반응을 기다리며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소장을 비롯한 여러 젊은 직원들이 여러 달에 걸쳐 심혈을 기울이고 지혜를 모아서 작성한 이 제안서를 받아 본 장관은 끝내 한 마디 위로의 말이나 설명도 없이 이를 묵살해버리고 말았다. 그 때의 실망감을 후일 김두홍은 이렇게 적고 있다. “이 안은 관련된 장관이 그의 중점 정책사항으로서 채택하여 추진하였더라면 그 이유 하나 만으로도 그의 이름이 한국의 과학기

술사에 기록될만한 정책상의 호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당시의 관계 장관은 이안에 대하여 전혀 반응이 없었다”(김두홍, 정보의 세계: 김두홍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부산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동창회, 1993. 258쪽). 장관이 묵살하였다고 해서 이 제안서에 담긴 모형이 쓰레기통 속에 들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제안서가 그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기는 하지만 제안서가 채택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의 비전에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비록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어려움이 더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다음 날부터 그는 제안서 속의 계획을 하나 하나 차례로 실행에 옮길 준비에 착수하였다. 우선 Korstic은 국제적 유대와 협력관계부터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과학기술정보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국제적 성격의 행위이다. 물론 Korstic은 수년 전부터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의 주요 정보 서비스기관들과 접촉을 가져왔으나 실적은 미미하였다. 김두홍은 이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일본의 과학기술정보센터(JICST)는 여러 면에서 Korstic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첫 번째 접근대상이 되었다.

당시 JICST는 33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연간 문헌복사 서비스 41만 건, 문헌번역 서비스 7천 건을 제공하는 대규모의 국가정보 서비스기관으로 대형 컴퓨터를 도입하여 초록지의 편집과 조판을 이미 자동화하고 정보검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었다. 앞서 가는 이 이웃나라 정보서비스기관은 Korstic의 접근에 대하여 기대 이상으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직원 연수 등 여러 가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이웃 나라 사이의 정도 있었겠지만 김두홍 소장의 유창한 일본어와 그의 진지한 설득이 많은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한다. JICST와의 협력관계를 위한 노력이 일단락 지어지자 다음으로 그는 영국의 국립도서관 대출부와의 관계로 눈을 돌렸다. 그런

식으로 미국, 프랑스, 호주, 자유중국, 인도, 캐나다 등의 주요 정보서비스 기관과의 협력관계도 다 실질적인 관계로 발전시켰다. 개별 국가 정보서비스 기관들과의 협력관계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자 다음으로 그가 눈을 돌린 것은 정보서비스 관련 국제기구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일이었다. 첫 번째 접근대상이 된 것은 국제문헌정보연맹(FID)이었다. Korstic은 1969년에 이미 FID에 국가대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으나 그 때까지는 연회비 432불을 보내고 "FID News Bulletin", "FID Yearbook" 등 FID의 출판물 몇 권씩을 받아 보는 정도의 관계와 의미에 지나지 않았다.

김두홍은 1971년 FID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한국에 있어서의 문헌정보활동 현황"이라는 주제로 연설하고 Korstic에서 출판된 "한국의 문헌정보활동"이라는 제목의 영문 책자를 회의 참석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후 그는 FID 관계 회의는 물론 그 산하기관인 국제문헌정보연맹 아시아·대양주지역회의(FID/CAO)의 각종 회의에도 적극 참석하면서 여러 나라 정보서비스 분야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켜나갔다. 1974년 서울에서 열린 FID/CAO 제3차 총회 및 세미나에서 그는 회의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1978년 서울에서 열린 제5차 FID/CAO 총회 및 세미나에서는 회의 조직위원장 및 의장으로 활동하였다. 1977년에서 1980년까지 그는 FID/CAO의 회장이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Korstic은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거의 끝내고 설립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외부적으로는 FID 등 국제기구에서의 적극적 활동으로 국제적 위상이 크게 향상되었다. Korstic 청사의 풍경도 달라졌다. 직원들은 우리 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그들이 중요한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고 복도나 사무실에서는 훈

련을 받으러 혹은 견학하러 온 외국인 직원들이 늘 눈에 띄었다.

김두홍의 리더십은 정보서비스에 대한 그의 전문적 지식에 기초하였다.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알지 못한다면 어찌 지도자를 자임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가 학교 교육을 통하여 얻은 정보서비스 관련 지식이나 기술은 거의 없었다. 그가 공부한 연세대학교 도서관학당 사서교사과정의 교육과정에는 정보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는 대학의 정규 도서관학 교육과정에 "도큐멘테이션"이라는 과목이 막 개설된 때였다. 그러나 지식을 얻는 길이 어디 학교에만 있는가. 러시아의 작가 고르키의 소설 "나의 대학"(모이 유니베르시테뜨이) 속의 주인공 "나"는 소년시절 광부가 되기 위하여 집을 떠나면서 "나는 대학공부하러 코카시아에 간다"고 하였다. 그는 그 곳에서 여러 해 동안 고된 탄광노동을 견디며 비참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동료 광부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체험을 통하여 대학 이상의 사회학 공부를 하고 강인한 혁명투사가 되어 돌아왔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배우는 길이 가장 능률적이고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둘러보면 사람들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주변에 의외로 많다. 다만 학습자의 의욕과 노력의 정도가 문제일 뿐이다. 김두홍은 일본어와 영어로 된 전문서적들을 눈에 띄는 대로 모두 사들여 그것들을 하나씩 차례로 읽어갔다. 정보서비스 관련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거기서 발표되는 다른 나라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회의 참석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배웠다. 그는 특히 외국 정보서비스 기관 견학을 통하여 Korstic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귀중한 지식을 많이 얻었다. 1972년에 영국, 독일, 프랑스의 세 나라 과학기술정보 활동을 견학하고, 다음 해에 미국의 과학기술정보 활동을 견학하고, 그 다음 해에는 자유중국,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필

리핀의 정보서비스 기관들을 둘러보았다. 이렇게 하여 비록 대학에서 교수의 강의를 통하여 배우지는 않았지만 정보서비스에 관하여 그는 상당한 수준의 이해에 이르게 되었다. 자신도 정보서비스의 지적 기반에 관한 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로 그의 대학 출강이 그 때 쯤에 시작된 사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늘 바쁜 일과를 소화하며 살았지만 대학의 초빙을 수락하고 서울시내 대학에서 시간강사 자격으로 대학원 학생들에게 정보서비스 관련 과목을 가르쳤다. 그와 가까이 일한 사람들은 학습자로서 그의 강점은 목표를 설정하면 절대로 중도에서 머뭇거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추구하는 집요함이라고 한다. 매사에 부지런함도 사람들이 다 아는 바 그의 소중한 무형의 자산이었다.

김두홍 리더십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부하 직원들에게 일을 맡기고 간섭하지 않는 것이었다. 일부 유능한 직원들을 믿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거나 맡긴 일이 기대한 대로 잘 진행될 때 간섭하지 않는 지도자는 많다. 그러나 김두홍은 일부가 아닌 모든 직원들을 마음으로부터 전폭 신뢰하고 일을 맡기며 일이 기대한 만큼 잘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인지하였을 때에도 그것이 Korstic을 위협에 빠트릴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간섭하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그가 부하 직원이 하는 일에 간섭하는 경우에도 친근하게 다가가서 특유의 정이 넘치는 대화법으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의논하는 식이었다. 이러한 리더십 유형이 단기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있음은 사실이다. 일의 진행이 느리고 낭비가 일어나며 결과가 불완전한 것일 수 있다. 그런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는 직원들의 자질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예산을 아끼지 않았다. 내부 연수 프로그램을 자주 마련하고 우수한 직원들에게는 외국 연수 또는 유학의 기회를 부

여하였다. 그가 고집한 리더십 유형이 장기적으로는 물론 긍정적 측면이 많았다. 직원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창조적 사고력을 개발하고 결과적으로 한 기관의 일이 지도자의 개인적 식견과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 전 직원의 능력과 지혜를 모으면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그것이 결국 그의 소장 재임 12년 동안 Korstic의 발전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본다. 당시 필자가 Korstic을 방문하면서 받은 인상은 넓은 청사 안에 소장은 보이지 않고 많은 직원들이 각각 자기 위치에서 요즘의 직명을 빌어 말한다면 마치 그들 모두가 팀장인 것처럼 당당한 자세로 맡은 일들을 각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이었다. 김두홍의 리더십은 결과적으로 많은 차세대 지도자를 배출하였다. 정보서비스 분야의 유능한 관리자는 물론 많은 교수들이 그의 Korstic에서 나왔다. 그가 일을 맡기 되 전적으로 맡겨서 훈련시키고 끊임없이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김두홍 리더십의 특징을 말하면서 그의 친화력 있는 대화법을 뱌 수 없다. 그가 윗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말하였는지 필자는 잘 모른다. 그러나 부하 직원들과 주고 받는 그의 말은 좀 특이하였다. 공석과 사석을 막론하고 그는 부하 직원들과 언제나 친구 사이처럼 친근하게 대화하였다. 그는 정이나 진심이 배지 않은 '말'이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잠깐 영어의 뜻을 빌리면 'talk'나 'conversation'이 아닌 'communication'을 하였다는 것이다. 부하 직원이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도 그는 대화로 당사자가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고 잘못에 대한 보상이나 사후대책을 스스로 제의하게 만들었다. 그는 부하 직원들의 말, 표정, 눈빛의 겉뜻과 속뜻을 읽을 줄 알았다. 어떻게 보면 좀 권위가 결여된 듯한 그의 독특한 대화법, 바로 그 대화법 덕택에 문헌정보학, 전자계산학, 경영학 등 다양한 배경의 직원들이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Korstic이 그의 긴

소장 재임기간 중 한결 같이 평화롭고 질서있게 발전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는 화술이 뛰어난 사람이며 말하기를 좋아하기도 한 사람이었다. 그가 입을 열어 동서고금의 희안한 러브 스토리와 무용담을 그 나름의 해석을 섞어가면서 줄줄 외어 가면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은 이야기에 취해 약속시간 지나는 줄을 몰랐다. 그가 평소 이야기로 친구들을 얼마나 즐겁게 해주었는지는 그의 정년퇴임을 축하하며 바친 한 친구의 시 속에 잘 나타나 있다.

... 성내는 일로 숨이 가뭇다가도
 선생님 익살기 재담 한번 들으면
 아니 웃고는 못 배기던 일
 그 작으신 몸매 어디메
 그리도 재미있는 웃음기를 감추셨는지
 생각하고 떠올리면
 다시 웃음 김두홍 선생님
 잔잔하되 대쪽이셨고
 가벼운 듯 유연한 그 속
 재주에다 재미도 가득
 우릴 늘 젊게 붓들고 노니시던

김두홍 선생님... (김두홍, 정보의 세계: 김두홍 교수 정년 기념 논문집, 부산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동창회, 1993. 7쪽).

● ●
 ● 글은 맺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헌정보인 김두홍의 주요 경력은 성격이 다른 세 전문분야 경력으로 이어져 있다. 세 전문분야에서 활동한 기간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삼등분 하여 옮겨 다닌 것처럼 각 기간이 10년 내외로 비슷하다. 즉, 그는 1956년 3월부터 1966년 3월까지 10년간 사서교사 및 도서관 담당 장학사로, 1968년 9월부터 1980년 9월까지 12년간 Korstic 소장으로, 1980년 9월부터 1993년 8월까지 13년간 부산

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 교수로 활동한 것이다. 그 세 분야에서 일한 보람이 그의 개인적 삶에서 각각 차지한 비중은 서로 비슷한 것 같다고 그는 만년에 동료들에게 말하곤 하였다.

그 세 분야에서 그가 남긴 업적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비슷하고 서로 큰 차이가 없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마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 글을 쓰기 시작할 때 그의 세 분야 활동을 비슷한 분량의 글로 써서 전체를 구성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글쓰기 요령이 없는 사람의 글이 종종 그렇듯이 이 글도 두 분야의 활동을 적고 나니 벌써 당초 예정했던 분량이 다 채워지고 말았다. 본래의 구상대로 하자면 이미 쓴 글의 많은 부분을 잘라내야 하는데 그것이 또 단순한 작업이 아닐 것이다. 결국 문헌정보학 교수시절의 김두홍에 대하여는 후일로 미루기로 하였다.

부산여자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후 김두홍은 이전의 사서교사 시절이나 Korstic 시절보다 비교적 평온하고 안정된 날들을 보냈다. 대학이라는 차분한 분위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꽤 길어진 타향살이에 종지부를 찍고 그의 마음의 고향 부산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었다. 다시 만난 젊은 시절의 반가운 친구들, 낯익은 말씨와 도시풍경, 뱃고동 소리, 바다 냄새 등이 그의 마음에 포근한 쉼을 주었다. 20 여년간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젊음을 바쳐서 미친 듯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온 그에게 그것은 합당한 보상이었다.

필자가 그를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일년 전 즉 1998년의 여름이었다. 그 해 여름 필자는 그 때까지 은퇴한 문헌정보학 교수 열 한 분을 어느 조용한 식당에 청하여 오랜 기간만에 오찬을 함께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고 싶었다. 그 동안 그런 모임이 한번도 없어 모두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여 견딜 수 없었다. 여러 사람의 사정을 고려하여 10월

어느 금요일의 낮 시간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호텔 양식부에서 만나기로 우리는 합의하였다. 필자가 부산에 사는 김두홍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대단히 기뻐하며 선뜻 응낙하였고 꽤 오래 격조하였던 터라 그 동안 지내온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다. 그런데 그는 대화 끝에 슬픈 목소리로 “최 교수, 내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 날 서울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좋은 기회인데… 하여튼 꼭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하며 전화를 끊었다. 어디가 많이 아프신가. 몹시 걱정이 되었다. 그런데 그 날 그는 약속된 장소에 제일 먼저 와 있었다. 그가 온 것은 다행이었지만 참석자가 모두 다섯 사람 뿐이라 좀 실망하였다. 김두홍을 비롯하여 이춘희, 천혜봉, 이재철, 필자의 다섯 명이 모였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고 이봉순 교수는 전 날 미장원에 가서 머리 모양까지 내고 기다렸는데 집을 나서는 시간에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져 부득이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고 후일 알려주었다.

그 날 다섯 사람은 짧은 시절의 어느 한 모임으로 돌아간 듯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이 웃었다. 김두홍의 재담을 들으며 사람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의 얼굴이 약간 창백하고 피곤해 보여 필자는 은근히 혼자 걱정하였지만 그는 애써 태연스럽게 보이려고 하였다. 다음 해 부음을 듣고 나서 알았지만 그는 그 날 모임에 특별한 뜻을 두고 있었던 것 같다. 평생 같은 분야에서 일하며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였던 사랑하는 동료들과 작별인사를 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였고 그래서 그는 약해진 몸을 끌고 어렵게 그 날 부산에서 서울에 온 것이다.

그는 대화 중 자연스럽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지난 날 그의 미숙한 언행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일, 도움을 받고 고마웠던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용서를 빌기도 하고 늘 고맙게 생각하며 산다고도 하였다. 사람이 죽으면 빛이

든 원한이든 다 저절로 사라지는 법인데 그는 자신이 세상에 와서 움직인 자리를 세밀하게 뒤돌아 살펴보고 행여 사소한 일이라도 미제된 것이 있으면 직접 꼼꼼하게 정리하고 떠나려고 하였던 것 같다. 그 날 모였던 다섯 사람 중 살아 있는 네 사람은 지금도 활짝 웃던 그 날의 김두홍을 기억 속에 떠올리고 좋은 분이었지 하며 입가에 미소를 띄곤 한다. 김두홍, 그는 뛰어난 일꾼이요 정말 멋진 사나이였다.

金斗弘 교수 略歷

- 1928年 4月 2日 慶尙北道 慶州 出生
- 釜山大學校 史學科 卒業
- 延世大學校 圖書館學堂 司書教師課程 修了
- 서울大學校 教育大學院 卒業
- 1956~1962 慶南高等學校 教師 兼 司書教師
- 1962~1963 慶尙南道教育研究所 研究士
- 1963~1966 慶尙南道教育委員會 獎學士(圖書館擔當)
- 1966~1968 韓國圖書館協會 企劃部長·總務部長
- 1966~1973 成均館大學校附設韓國司書教育院 講師
- 1966~1974 成均館大學校 文科大學 및 大學院 圖書館學科 講師
- 1973~1976 梨花女子大學校大學院圖書館學科 講師
- 1968~1977 UNESCO 韓國委員會 委員
- 1966~1980 韓國圖書館協會 理事
- 1974~1977 世界科學情報流通體制韓國委員會 委員長
- 1974~1977 國務總理傘下 長期資源對策委員會 委員
- 1977~1980 國際文獻情報聯盟亞細亞大洋州地域會議 (FID/CAO) 會長
- 1975~1980 테크노네트 아시아(아시아 地域技術情報 네트워크) 理事 및 議長
- 1968~1980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 事務局長·資料管理局長·所長
- 1980~1993 釜山女子大學校 學生處長·教務處長·圖書館長
- 1992~1993 韓國圖書館·情報學會長

〈주요 著書〉

- 1966 學敎圖書館圖書運用論
- 1967 非圖書資料의 整理 및 運用 (공저)
- 1985 도서관 전산화 시스템 (공역)
- 1987 도서관·정보학개론 (등역)
- 1990 색인 및 초록작성법 (공역)
- 1993 문헌정보학개론 (공역)